



해양개발에 미래가 있다

정 범 동*

세상에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나 역시도 그런 관계를 지닌 사람중의 하나이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바다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에서 제2의 항구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이었기에 대부분의 아동 시절과 유년 시절을 바다와 함께 보냈다. 또한 아버지의 고향이 남해이다보니 명절만 되면 가는 곳도 바다였고 대학 또한 삼면이 바다로 에워싸인 조도, 그곳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에 진학함으로써 내 인생은 실로 바다와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앞으로의 삶도 바다와 함께 할 것 같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바다와 지내온 나이지만 사실 누구나가 지닐 수 있는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상만을 지닐 뿐 남다른 사고나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을 바다와 함께 했기에 웬만한 사람보다는 바다사랑의 마음이 크지 않았나 한다. 바닷가에 가면 우선 온몸을 파고드는 바다냄새에 전율하게 되고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푸른색이 주는 시각적인 안도감에 젖어든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귀기울여 들어보면 바다가 만들어 내는 자연의 소리가 귀를 편안하게 해준다. 눈을 감으면 온 몸으로 바다가 주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노라면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바닷물의 맛을 보노라면 짹짹하게 자연의 맛을 느끼게 해준다. 사람들이 힘든 일이

* 해사대학 해양경찰학과

나 괴로운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기 위해 바닷가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바다를 오감으로 느껴보면 누구나가 바다가 한결 가깝게 다가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이내 태곳적 향수를 느끼면서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어느 과학자는 지구상에서 양수와 조성이 가장 비슷한 물질은 바닷물이다라는 말을 볼 때 어느 정도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님은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바다는 지구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20세기에 인류가 지구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명칭인 ‘물의 혹성’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지구를 물의 혹성이라 칭함은 지구상에서의 바다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실감하게 할 대목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신해양 질서의 시대에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광대한 바다를 가진 나라가 최대의 부존 자원국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로써는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해양행정, 해양개발, 해양활용 면에서 한국을 볼 때 이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비록 해양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지금 우리의 해양정책과 실황은 만족스럽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더 많고 해양행정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국가 행정기구에서의 위신이라든지 국가의 해양관련예산을 다른 해양선진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열등하여 한숨만 절로 나올 지경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해양 선진 주도국으로 한국의 명성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도 남음이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한일 어업 협정때 독도를 공해로 하기로 합의를 보게 되어 전국민이 울분을 삼키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단군이래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독도를 빼앗길 수 있었던 말인가? 모두 해양수산부 장관을 욕하고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돌대가리만 모였나 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 반응과 어업협정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옷을 벗긴 했지만, 그건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두 말할 필요 없다. 일본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를 치밀하게 연구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알고 자신의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다. 그 왜곡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현재 일본 역사 교과서는 우리가 보면 열받을 정도의 내용이 실려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는 실제 역사와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한다. 오랜 기간을 일본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들을 모아 연구했으니 일본인의 치밀함과 철저한 준비성으로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서의 한국의 패배라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밑바탕이 있었기에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언제 일본이 독도마저 자기네 땅이라며 가져가겠다고 할 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빼앗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이를 볼 때 우리 나라가 이번 어업협정에서 너무나도 바보처럼 쉽게 일본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은 물론 일본인의 철저한 준비성과 치밀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양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수한 인재가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워낙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반박할만한 건덕지만 찾으려 했다면 수십 수백개를 찾고도 남음이고 독도는 당연히 우리 것이고 대마도 까지도 찾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만큼 우수한 인재의 등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관에 의해 바다에서의 어로활동, 상업활동 등을 경시해왔으며 불교에서도 고해라하여 바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었다. 이러한 사고의 잔해들이 아직도 한국인의 머릿 속에는 남아 있어 한국의 해양업계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겠다고 생각하여 해양관련 업계의 우수 인력을 많이 양성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사관련대학을 많이 세워 많은 지원과 개발을 해서 해양 주도국의 기초를 다져야함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일일터인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도 아무도 개탄치 않는다. 개탄하는 사람은 지금 글을 적고 있는 나 혼자인 것 같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

276232

룻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중 해양관련대학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표해양대학교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대학의 숫자가 적다면 학생들의 성적이라도 우수하여 소수정예로 우수 학생을 배출하면 좋으려면 지방대학 중하위권이라는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의 대학으로 처져 있으니 어떻게 훌륭한 인재가 해양시대를 주도 할 수 있겠는가? 말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21세기 해양 선진국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도 안되는 판국에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단 말인가? 모든 일엔 우선 순위가 있는 법, 정부에선 빨리 손을 써야할 것이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표해양대학교 등의 해양관련대학에 대폭적인 지지 및 지원을 하여 우수대학으로 만들어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던가, 아니면 현재 명문대로 군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해양 관련학과를 많이 신설하게 하여 그 학과에 지원금을 왕창 줘서, 우수 인재의 관심을 모아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던가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수 인력이 해양 관계 업계에 모여들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해양관련대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고 해양관련학과를 신설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해양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많이 양성해 놓아도 정작 해양관련업계의 밝은 비전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이 인재들은 더 나은 대우와 여건의 직장과 직업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꿈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해양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높은 보수와 좋은 근로 조건과 좋은 인지도와 높은 지지율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해양관련업 종사자에 대한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부터 변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양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행정 조직 내 타부서보다 힘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해양 수산부 장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관련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든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하여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은 비록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갈데 없는

고시 낙오자들이 해양 관련 부처에 배정 받는다는 우스갯 소리가 돌 정도로 해양 관련 부처의 위신이 떨어져 있지만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해주고 전국민적 관심과 이에 대한 지지가 있다면 이런 우스갯 소리쯤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번 어업 협정에서의 불미스러운 결과로 인한 패배감과 굴욕감을 두 번 다시 느끼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해양관련업계의 우수 인력 확보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21세기를 주도할 해양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해양과학기술의 발달과 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적극적인 투자 또한 중요한 과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선박 건조량 세계 2위, 선박 생산량 세계 2위 등 다수의 해양관련업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세계 10대 해양 강대국에 든다고 큰 소리 뽕뽕치고 있지만 정작 해양 관련업에서 고도의 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선박 설계 및 주요 부품의 설계와 생산은 미국이나 일본의 과학자들의 머리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핵심부분은 외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라곤 페인트 칠, 선박 건조, 용접 등의 대형 자본이 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고 부가가치가 낮고 실제 조선 공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작업만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세계 10대 해양 강대국이라고 떠들어 대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이런 점을 살펴 볼 때 조선 공학을 포함한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긴, 자동차 한대도 국내 기술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판국에 선박 한척을 만들어 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조선공학에서도 해양과학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겠지만 해양과학기술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해양에 존재하는 에너지 자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 번째는, 해저 에너지 자원이라 칭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다. 두 번째는, 해수 용존 에너지 자원으로 해수 속에 용존하는 우라늄, 라듐, 중수 등의 자원이다. 세 번째는, 해류, 조석, 파랑, 해양 온도차, 염분 농도차, 해양 생물 등으로 해양에 무한량 존재하는 자연 에너지이다. 이상 세가지로 분류된 에너지 중에서 해저 에너지, 해수 용존 에너지는

비재생 에너지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에너지가 아니다. 반면에 해양의 자연 에너지는 태양 등에 의해 끝없이 공급되는 재생 에너지이다. 특히 자연 에너지는 폐기물이 남지 않아 환경 보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한번 설치로 영구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개발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 에너지라는 명칭으로 논하는 경우는 재생 에너지인 해양의 자연 에너지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가 해양과학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무한히 공급되는 해양의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와 환경 오염 방지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흔히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억 이상의 인구를 꼽는다. 현대 우리나라는 남북한 다 합쳐봐야 7천만 정도이다. 1억 이상의 인구는 내부 경제만으로도 그 국가를 지탱시킬 수 있게 하기에 반드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하겠는데 사실, 이 좁은 땅 덩어리에 1억의 인구가 주저 걱정 안하고 마음 편히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매립지 조성, 인공섬 조성, 해저 도시의 조성 등이 해양 과학 기술의 도움으로 발달되고 개발되어 가능해진다면 우리도 1억의 인구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한발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해양개발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해양환경 보존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 70, 80년도의 공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에서의 개발은 그 특성상 육지에서의 개발보다도 환경 보전과의 조화에 각별히 신경써야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뉴트론티어라고 일컬어지는 해양 공간은 내일의 한국을 담당할 귀중한 공간이며, 특히 국토의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국토 공간으로서의 기대가 극히 높다. 이러한 해양 공간을 잘 가꾸고 잘 활용한다면 통일신라시대 때 동북아시아의 해상 대국으로 군림하게한 장보고의 뒤를 이어 제 2의 해양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